

“쿠팡 빼고 다 뭉쳐”...격변의 e커머스, 전열 재정비

쿠팡 미국 증시 상장 후 움직임 빨라져

예고된 쿠팡 물량 공세에 힘 합쳐 맞서

네이버 CJ·신세계와 손잡고 맞대응 나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결과에 지각 변동

쿠팡의 시가 총액 '100조원 쇼크'에 e커머스 업계가 격변을 맞고 있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이후 약 5조원을 조달해 전례 없는 물량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자 쿠팡을 뺀 나머지 주요 e커머스 업체가 합종연횡하며 쿠팡 독주를 미리 견제하기 위해 대책을 찾는 형국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구도가 ‘쿠팡 대 나머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쿠팡 대 나머지

지난해 국내 e커머스 업체 거래액 순위는 네이버(27조원), 쿠팡(22조원), 이베이코리아(20조원), 11번가(10조원), 롯데온(7.6조원), 위메프(7조원), 티몬(5조원), 카카오(4조원), SSG닷컴(3.9조원) 순이었다.

쿠팡을 뺀 8개 업체 중 상위권인 네이버·이베이코리아·11번가 등과 전통의 유통 강자인 롯데·신세계 등은 최근 e커머스 부문 강화를 위해 굵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모든 업체가 사활을 걸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네이버의 약점 보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CJ그룹과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지난 16일엔 신세계그룹과 손잡았다. 네이버는 CJ대한통운을 통해 약점으로 지적받던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를, 신세계를 통해서도 또 다른 약점 중 하나였던 쇼핑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풀필먼트는 포장·배송·보관·관리·교환·환불 등 물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은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오픈마켓을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국내 최대 물류 회사를 가진 CJ와 협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세계와 손잡은 것은 식품 등 신세계가 가진 콘텐츠 구성 능력까지 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마치 원포인트 레스를 받듯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신세계는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고, 부족한 물류 역량을 네이버와 손잡은 CJ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가 가진 IT 역량을 콘텐츠에 활용한 단계 진화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어디로

앞으로 e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종료한 예비 입찰에는 롯데·신세계·SK텔레콤(11번가)·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당초 유력 물량 역량을 네이버와 손잡은 CJ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네이버가 가진 IT 역량을 콘텐츠에 활용한 단계 진화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거래액 20조원은 어떤 회사와 결합해도 당장에 네이버·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예비 입찰 참여 업체 모두 이베이코리아가 가진 ‘규모’가 절실한 상황이다. 쿠팡과 네이버가 진격을 시작한 상

황에서 여기서 주춤하면 영원히 ‘e커머스 마이너 회사’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최근 실적 부진을 이유로 e커머스 사업부장을 경질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나서 SSG닷컴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미국 최대 유통 기업인 아마존과 협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베이코리아까지 가져가면 국내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갈수록 약해지는 온라인 부문을 더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를 가져간다는 것은 온라인 유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결국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상장하는 컬리와 티몬

쿠팡의 성공적인 상장은 국내 다른 e커머스 업체 상장에도 속도를 불어고 있다.

마켓컬리는 쿠팡 미국 상장이 진행된 12일(현지 시각 11일)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새벽배송’ 시대를 연 마켓컬리는 매년 매출이 2~4배 늘어 지난해는 매출 1조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티몬은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티몬은 ‘타임 커머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지난해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민정기자



‘캠핑 먹거리 준비하세요’ 17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캠핑 먹거리를 홍보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8일부터 24일까지 캠핑의 꽃 ‘먹방’을 위해 준비한 ‘이 정도는 먹어줘야 진짜 캠핑’ 행사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안한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한국인 ‘넷플릭스’ 결제 역대 최고 돌파

2월 넷플릭스 결제금액 725억원·결제자수 501만명

넷플릭스(NETFLIX)의 결제금액과 결제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엠/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아이즈리테일이 지난 달 만 20세 이상 한국인 개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725억 원으로 추정됐다. 작년 2월 결제금액 225억 원에서 올해 2월은 결제금액이 725억으로

222% 증가했다. 결제자수도 5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성장했다.

결제자수의 증가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결제하는 연령층도 변화를 보였다.

작년 2월의 연령별 결제자수 분포는 20대가 43.6%(73만 명), 30대가 24.2%(41만 명), 40대가 15.5%(26만 명), 50대 이상이

16.7%(28만 명)로 20대에서 결제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올해 2월에는 20대가 31.9%(160만 명), 30대가 27.4%(138만 명), 40대가 21.4%(108만 명), 50대 이상이 19.1%(95만 명)로 결제자 연령층이 확대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통신사를 통해 넷플릭스 요금을 합산 지불하거나, iTunes 등에서 결제하는 사용자는 제외됐다. 기동취재본부

‘쑥쑥 크는 반려동물 시장’ 제약·바이오 업계도 ‘출사표’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영역 도전



동국제약, GC녹십자랩셀 등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진단부터 치료까지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한다. 국내 반려동물 전체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3753억 원에서 2027년 6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제약은 오는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이 고성장하는 만큼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랩셀은 최근 동물 진단검사 전문회사 ‘그린벳’(Green Vet)을 설립했다. 진단 검사로 사업을 시작해서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사료 등으로 넓혀며 반려동물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며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단검사 분야는 박수원 전 한국임상수의학회 이사 등 수의사 출신으로 검진센터를 구성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백신과 진단키트, 의약품, 특수 사료 분야의 경우 관련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직접 개발은 물론 유통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C녹십자랩셀의 진단 및 바이오 물류 사업의 노후화가 기반이 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동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평가하고 있다.

GC녹십자랩셀 관계자는 “기존에 인체 진단기술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반려동물 진단 역량도 충분하다”며 “반려동물 진단을 위한 시스템과 검사기관을 구축했다. 또 전국 동물병원의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과 그린벳을 합작설립한 만큼 진단검사 분야의 경우 이르면 내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엔티파마는 지난달 국내 처음으로 반려견 치매(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크리스탈살라진’(상품명 제다큐어 츄어블정)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 승인을 받았다.

반려견 치매 치료제의 국내 동물의약품 품목허가는 국내 최초다. 1999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셀레길린이 유일하다.

지엔티파마는 치매에 걸린 반려견 48마리를 대상으로 크리스탈살라진이 효과가 있는지 4~8주간 허가용 임상을 진행한 결과 인지가 크게 개선되고 치료효과도 유지됐다고 밝혔다.

종근당 자회사인 경보제약은 지난 2019년 아이바이오코리아와 동물용 신약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시동을 걸었다. 아이바이오코리아는 인체·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두 회사는 동물용 연구건조제 치료제를 시작으로 아토피 치료제, 신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관절염, 알레르기 등 염증성 질환 치료제로 동물용 의약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내년부터 공항 ‘생체정보 비대면 탑승수속’ 가능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확대 구축...항공보안 강화

다음달부터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도 시범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로 탑승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17일 발표했다.

우선 한국관 뉴딜사업 예산을 투입해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내년부터 조기에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68억1000만원, 내년에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테라헤르츠(THz)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드론을 활용한 항공테

러를 예방을 위해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제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범추진 한다.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속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검색 완화

를 지속 협의해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토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환경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항 반경 9.3km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